

カチ の 声



かち

第10号

2005. 8

目次

翻訳を語る (10)
重松 清

P.2

P.4

日本文学の中の韓国 (2)
日韓友情のゆくえ～中島敦「虎狩」

P.7

5

P.10

P.11

日本語上達のために (8)
ことわざの略語

P.12

読者の広場



『カチの声』第10号記念
日本人の目・韓国人の目 (10)
特集 座談会
「特派員の目から見た日本と韓国」



翻訳を語る 10

ひだり あ

『左開きで見つける幸せ』



これは恥を忍んで申し上げるしかないことなのだが、ぼくは英語がまったくできない。「受験のための英語」ではそれなりの成績をとっていたのだが、「実用の英語」はさっぱり、なのである。そんな男に、翻訳についてなにごとかまっとうなことを語る資格などありはしない。

おまけに、このシゲマツという奴、ろくでもない野郎で、大学生の頃は読めもしないくせにペーパーバックを何冊も——アクセサリーとして書棚に入れていた。英語、というより横文字に対する憧れとコンプレックスを隠しきれない田舎者だったのである。もちろん、ペーパーバック(たしかヘミングウェイとかスタインベックとか、そこらあたりだった)の中身のほうは一行たりとも読んでいない。

ただ、本をめくるのは、好きだった。

なぜかという、日本の本は基本的に右開きだが、ペーパーバックは左開き——正反対なのである。当然、「本をめくる」という手指の動きもふだんとは逆になる。いわば、本をおしまいのページから読んでいようなものなのだ。

それがなんともいえず新鮮で、暇なときには、ぱらぱら、ぱらぱら、とページをめくっていた。二十歳前後のことである。

その頃は指や目の動きがいつもと違うことを面白がっているだけだったが、さすがに四十歳にもなれば、少しはムズカしいことも考える。

たとえば、平穏な日常がなにかの事件によって崩壊する過程を描き、救いのないラストシーンで終わる小説がある。ところが、そんなストーリーを、ビデオテープを巻き戻し再生するようにおしまいのページから読み返していけば、それはハッピーエンドになる。片思いから恋愛成就に至る物語の場合は、逆に、最後に主人公は孤独の淵に沈み込むことになってしまう。

屁理屈——わかっている。

だが、ささやかでありふれた日常生活——右開きで読んでいけば物語の発端以前にしかならない光景が、強引な左開きで物語をさかのぼっていくと幸せな結末になることがある、というのは、ぼく自身が好んで描く物語を考えるうえで、大きなヒントと勇気を与えてくれる。

ぼくは、いつでも「いまの時代を生きる普通のひとびとの幸せとはなにか？」を考えながら、お話を描いている。

「幸せ」といっても、ぼくの言うそれは決して大きなものではない。「幸福」と呼び替えると気恥ずかしさに「うひゃあ」と首を縮めたくくなるような、ほんとうにちっぽけで、ありふれていて、でも「生きていくのも捨てたものじゃないな」と思えるような瞬間……。

そういう瞬間は、しばしば見過ごされてしまう。あたりまえの毎日、平凡な日常のなかに埋没してしまう。ずっとあとになって振り返って、ようやく「ああ、あの瞬間は確かに幸せだったんだな」と気づいても、時の流れを逆戻りさせることはかなわない。

번역을 말한다(10)

가로문자(왼쪽 넘기기)에서 발견하는 행복

시게마쓰 기요시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낄 수 밖에 없는 일이나,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 「수험을 위한 영어」에서는 그런대로 성적을 올렸으나 「실용영어」는 아주 형편없다.

그런 남자에게 번역에 관하여 뭐든 진실하게 말할 자격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다.

하물며 이 시게마쓰란 자식, 변변치 못한 놈으로 대학 시절에는 읽을 줄도 모르는 주제에 영가 도서를 몇 권이나 -장식으로- 책장에 꽂아 두었다. “영어”라기 보다는 가로문자에 대한 동경과 콤플렉스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시골 촌놈이었던 것이다.

물론 영가 도서(분명 헤밍웨이라든가 스타인벡과 같은 종류의 책이었다)의 내용은 한 행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단, 책을 넘기는 것만큼은 좋아했다.

왜냐하면 일본 책은 기본적으로 세로쓰기(오른쪽 넘기기)이나, 영가판 도서는 가로쓰기(왼쪽 넘기기)로 정반대인 것이다. 응당 책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도 보통 때와는 반대가 된다. 즉, 책의 마지막 쪽부터 읽는 것과 매한가지인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한가할 때면 책장을 훌훌 넘기며 읽곤 했다. 스무살 전후의 일이다.

그 즈음엔 손과 눈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즐겼을 뿐인데, 과연 마흔 살이 되고 보니 조금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예컨대, 평온한 일상이 어떤 사건에 의해 붕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암울한 라스트 신으로 맺는 소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비디오 테이프를 되돌려 재생하듯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으면 그것은 해피엔드가 된다. 짝사랑에서 연애에 골인하기까지의 이야기인 경우, 역으로 최후에 주인공은 고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

역지이론이란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보잘 것 없고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즉 오른쪽으로 책장을 넘겨 읽으면 이야기의 발단 이전 밖에 보이지 않던 광경이, 무리하게 왼쪽으로 넘겨 가며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즐겨 그리 는 이야기에 커다란 힌트와 용기를 제공해준다.

나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시아와세(행복)」란 순수 일본어로 말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것은 큰 것이 아니다. 「幸福(고후크)」이란 무거운 한자어로 바꿔 부르면 그 멋짐에 그만 목이 움츠러질 듯한 아주 작고 보잘 것 없으며 흐하디 흐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러한 순간은 종종 그냥 지나쳐버리게 된다. 반복되는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 매몰되어 버린다. 많

ぼくはいつも「平凡な生活を描く小説家」だと紹介される。平凡な生活を脅かす小さな事件と、その小さな解決を、飽きもせず(そして、たいして読者に喜ばれもせず)に描きつづけている作家らしいのだ、ぼくは。

ああ、そのとおりだとも。

だが、ぼくはそんな紹介の言辞に触れるたびに、心ひそかに反論を試みる。

ぼくが描いているのは、自分なりにとてもたいせつだと考えている幸せの瞬間なんだけどね。試しに、ぼくの本を左開きで最後のページから読んでごらんよ、きっとハッピーエンドの物語が、淡い色どりで見えてくるはずだから——と。

ぼくの小説で初めての翻訳本が、まもなく完成する。韓国で出版される。英語のできないぼくは、ハングルもさっぱりだめである。でも、ハンゲルの本って、たしか、左開き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いつもの新刊をめくるときとは違う指の動きで、いつもの文字とは違う文字で綴られた自分の物語を読んでみようか。ぼくの描くささやかな日常の風景が、ほんのわずかでも、よその国のひとの胸の中にある幸せの風景と触れ合っていてくれれば、すごく嬉しいのだけだ。

『Japanese Book News 第42号(2002冬発行)より転載』

은 시간이 흐른 후에 돌이켜 보면 그때서야 「아! 정말 그 순간이 행복했구나」라고 느껴더라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늘 「평범한 생활을 그리는 소설가」로 소개된다. 평범한 생활을 위협하는 작은 사건과 그 작은 해결을 싫증내지 않고(그리고 독자도 그다지 반기지 않지만 말그대로 난 그런 작가인 것이다) 계속 그리고 있는 작가인 듯하다. 나는.

아~. 그러나 난 그런 소개의 연사를 접할 때마다 남몰래 반론을 펼친다.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은 내 나름의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복의 순간이지만, 시험삼아 내 책을 왼쪽으로 넘겨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어 보기 바란다. 분명 해피엔드의 이야기가 담당한 색채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나의 소설이 번역본으로 곧 완성을 보게 된다. 한국에서 출판된다. 영어가 안되는 나는 한글도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렇지만 한글로 된 책은 분명 가로쓰기였던 것 같다. 어느 때의 신간을 넘길 때와는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어느 때의 문자와는 다른 문자로 씌어진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 볼까 한다. 내가 그리는 보잘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이 다소나마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의 풍경과 맞닿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지만 말이다.

執筆者紹介



重松 清

(しげまつ きよし)
作家

1963年3月6日生まれ
出身地：岡山県

職歴・経歴

出版社勤務を経て執筆活動に入る。

1999年『ナイフ』(1997年)で坪田譲治文学賞、同年『エイジ』(1999年)で山本周五郎賞受賞。ひとの心にビタミンのようにほたるく小説、全7編を収めた『ビタミンF』(2000年)で2001年第124回直木賞受賞。現代の家族の姿を描くことを大きなテーマに話題作を次々に発表している。その他の作品は、以下の通り。

『見張り塔からずっと』、『舞姫通信』、『幼な子われらに生まれ』、『定年ゴジラ』、『半パン・デイズ』、『日曜日の夕刊』、『カカシの夏休み』、『四十回のまばたき』、『さつき断景』、『リビング』、『隣人』、『口笛吹いて』、『セカンド・ライン』、『流星ワゴン』、『熱球』、『小さき者へ』、『きよしこ』、『トワイライト』、『心に届く日本語』、『疾走』、『ニッポンの課長』、『走って、負けて、愛されて。ハルウララ物語』、『ニッポンの課長』、『卒業』、『なぎさの媚薬』

韓国語に翻訳された作品

当センター文化情報室で8月下旬より貸出可能。

원서명 『비타민F』
김난주 옮김/소담출판사/ 2003.05 출간



『きよしこ』
오유리 옮김/양철북/2003.12 출간

원서명 『ナイフ』
오유리 옮김/양철북



원서명 『走って、負けて、愛されて。ハルウララ物語』
최영혁 옮김/청조사/2004.07 출간

원서명 『日曜日の夕刊』
김훈아 옮김/소담출판사/ 2004.11 출간



日本文学の中の韓国(2)

日韓友情のゆくえ——中島敦「虎狩」



第2回は日韓友情年にちなみ、日本人と韓国人の友情をテーマにした中島敦の小説「虎狩」を取り上げたい。主な登場人物は、日本人である「私」と韓国人の趙大煥。ストーリーは、「私」を語り手として友人の趙の思い出を綴ってゆくというもの。メインは虎狩の話だが、そのほかにもいくつもエピソードが描かれている。以下、そのうちの主なものを原作の流れに即して3部構成で紹介しよう。なお、この作品の執筆時期は1933~34年頃と言われている。

シーン①

韓国・龍山の学校に転校して来た「私」は趙大煥と友だちになったのだが、中学3年生のとき、ある事件が起きた。迎合を嫌う毅然とした性格の趙は、かねてより生意気だと周囲からいらまれていたが、とうとう複数の上級生(おそらく日本人)から暴行を受けたのだ。上級生たちがその場を去ったあと、「私」は趙のもとに駆けつける。すると、彼は涙を浮かべながら、

「どういふことなんだろうなあ。一体、強いとか、弱いとか、いふことは」

と謎めいた言葉を口にする。「私」は何も答えられないけれど、これは彼一人だけの感慨ではなく、個人を超えたもっと大きな疑念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た。

その後まもなくして、趙は行き先も告げずに、突如消息を絶つ。

シーン②

その事件から遡ること2年ほど前、両班出身で裕福な趙の父親に連れられて、「私」たちは虎狩に出かけた。猟師ら数人の一行で延々と山道を歩いたが、いっこうに虎は現れない。適当な場所で待ち伏せする間、趙がこんな話を聞かせてくれた。

以前この近くで虎が人間を襲ったが、前足の一撃でその人の頭からあごへかけて顔の半分が削ぎとられたそうだ。

趙の話しぶりは妙にワクワクしていて、あたかもそれと同じ事態が起きることを切望しているかのようだった。だが、依然として虎は登場しない。「私」はついウトウトするが、突然、鋭い叫び声で目を覚ました。見ると、一人の男が倒れていて、その前には虎がいる。さきほどの趙の話とそっくりだ。いよいよ虎が前に進

일본문학 속의 한국 (2)

일한우정의 전도 - 나카지마 아쓰시의 「虎狩(호랑이 사냥)」

「일본문학 속의 한국」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일한우정의 해와 관련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의 우정을 테마로 한 나카지마 아쓰시의 소설「虎狩」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등장인물은 일본인인 「나」와 한국인인 조대환. 스토리는 「나」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며 친구인 조대환의 추억을 더듬어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호랑이 사냥 이야기이나, 그 외에도 여러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그 중의 주요한 것을 원작의 흐름에 따라 3부 구성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집필시기는 1933년~34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장면1

한국·용산 학교에 전학 온 「나」는 조대환과 친구가 됐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영합을 싫어하는 의연한 성격의 소유자인 조대환은 전부터 주위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고 있었다. 결국 여러 명의 상급생(필시 일본인)에게서 폭력을 당하게 된다. 상급생들이 그 곳에서 사라진 뒤, 「나」는 조대환에게 달려간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월 뜻하는 거야. 도대체 강하다 라든가 약하다 라든가 하는 것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나」는 뭐라고 딱히 대답할 수 없었으나, 이것은 일개 개인만의 느낌이 아닌 개인을 뛰어 넘는 보다 큰 의구심이 아닐까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 조대환은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돌연 소식을 끊었다.

장면2

위 사건으로부터 2년 전의 일로 양반출신의 유복한 조대환의 아버지에 이끌려 우리들은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여러 명의 사냥꾼으로 구성된 일행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갔지만, 호랑이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적당한 장소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 조대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전에 이 근처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했는데, 앞다리의 일격만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서 턱까지의 얼굴 반쪽이 베어져 나갔다고 한다.

み出ようとしたその瞬間、銃声が鳴り響き、虎は死んだ。男は無事のように、趙は倒れている男を足で蹴り返し、「怪我もしていない」と不満を言った。

ここで、さきほどのシーン①の「**どういうことなんだろうなあ。一体、強いとか、弱いとか、いうことは**」という謎のセリフがどんな意味なのか考えてみよう。

シーン②の趙は両班階級の人間として明らかに強者の立場にいる。ひょっとすると、彼は自分が強者であることを「私」に見せた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さらには、歴史的には韓国のほうが日本より先進国なのだとの思いもあったかもしれない。いずれにせよ、このセリフが含意するのは弱者の嘆きではなく、本来強者であるはずの自分が弱者扱いされることへの強烈な違和感や戸惑いであろう。さらに一歩進めて、強い・弱いという価値基準そのものへの疑念が芽生えた、と解釈することも可能ではないだろうか。



シーン③

その後、すでに述べたように趙は消息を絶ったのだが、実はつい先日、「私」は東京で彼に会っている。

昼過ぎ、人ごみの中から一人の男が「私」に「煙草を一本くれ」と言ってきた。見覚えはあるが、誰なのか思い出せない。言われるままにタバコを渡すと、彼は薄笑いを浮かべながら、

「言葉で記憶していると、よくこんな間違いをする」

と再び謎めいたことを言う。彼はその意味をおよそ次のように説明した。

本当はマッチがほしかったのだが、言葉として“他人からマッチを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記憶しただけで、どうしてもマッチが必要だと全身全霊をかけて感情として記憶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言葉や文字の記憶は正確なかわりに、どうかすると、とんでもない別のものに化けてしまうことがある。感覚や感情ならば、薄れることはあっても他のものと混同することはない。今は言葉として記憶しただけなので、“マッチ”がいつのまにか“タバコ”に置き換わってしまったのだ。

その男が誰か思い出せないまま話を聞いていた「私」であるが、駅に到着してようやく彼が趙大煥であると気づく。しかし、遅まきながら、心から喜びを感じ、彼の肩をポンとたたこうとしたその瞬間、やって来た電車に乗るために彼は走り去って行ってしまった。

이상하리만큼 기대에 찬 조대환의 어조는 마치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만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카롭고 큰 소리에 잠이 깼다. 그러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고, 그 앞에는 호랑이가 있었다. 조금 전의 조대환의 이야기 그대로였다. 이윽고 호랑이가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지고 호랑이는 죽고 만다. 남자는 무사한 듯했으나, 조대환은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로 차 돌리고는 「아무런 상처도 없잖아」라며 불만스럽게 말했다.

여기에서 위의 장면1에서의 「뭘 뜻하는 거야. 도대체 강하다 라든가 약하다 라든가 하는 것은」이라는 의문의 대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장면2 에서 조대환은 양반가의 사람으로 분명 강자의 입장에 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강자라는 것을 「나」에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대사가 품고 있는 의미는 약자의 한탄이 아니라 본래 강자여야 할 자신이 약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강렬한 위화감과 당혹감의 표출일 것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강함과 약함의 가치기준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면3

그 후,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조대환은 소식을 끊었으나 실은 요 며칠 전, 「나」는 도쿄에서 그를 만났다.

점심 때가 지나,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담배 한 대 주겠어」라고 말을 걸어 왔다. 어디서 본 듯은 했으나 어떤 누구인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달라는 대로 담배를 건네자 그는 얇은 웃음을 띄우며,

「말로 기억하고 있으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며 다시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다. 그는 의미를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말은 성냥이 갖고 싶었으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성냥을 받아야 한다”고 기억한 것 일뿐, 어떻게든 성냥이 필요하다는 것을 혼신의 힘으로 즉 감정으로 기억한 것은 아니었다. 말이나 문자의 기억은 정확한 대신에, 터무니 없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감각이나 감정이라면 기억이 흐려지는 일은 있어도 다른 것으로 혼동되는 일은 없다. 지금 것은 말로만 기억했기 때문에 “성냥”이 “담배”로 자리 바꿈을 한 것이다.

그 남자가 누군지 생각해 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였으나, 역에 도착하여서야 그가 조

こうして、「私」は再び彼を見失ったのである。

以上でこの物語は終わるが、この趙のセリフについて彼自身の説明を少し補足してみたい。

趙は感情としての記憶が必要だと言っているが、それは外国語を使う場合の話だろう。なぜならふつう母語(国語)で何かを記憶するとき、いちいち気持ちを込める必要などないからだ。そして、当時、日本語が韓国人にとって「国語」とされていた事実を思い返すなら、ここで趙は日本植民地主義に抗して“韓国人にとって日本語は国語ではなく外国語である”と静かに宣言しているのである。

最初の謎のセリフの解釈を踏まえると、弱者として日本語の強制を嘆く様子もなく、さりとして強者として日本語の使用を拒絶する姿勢もない。そんな趙の日本語への態度は、強いか弱いかという価値基準を疑うと同時にそれを超えようとする可能性を予感させる。けれども、そうした難題に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のは趙大煥一人だけだ。「私」は良心的ではあるが、終始、傍観者のように見える。これが二人の友情のすれ違いの原因かもしれない。

さて、新しい価値基準の創出という難問に答えるのは容易ではない。実際、世界は相変わらず強いか弱いかで動いているようだ。それでも、もし趙大煥と「私」が一韓国人と日本人が一その問題を共有し一緒に議論してゆくなら、たとえすぐには答えが見つからなくても、新しい時代を切り開く強靱な友情が芽生えるにちがいない。仮に70年ほど前の「虎狩」という小説のリメイク版を今誰かが書くとしたら、どんな結末になるだろうか。今度こそ肩をたたこうとして伸ばしたその手がしっかりと相手に届いてほしい。

(フリーランスライター 星野政美)

原作では「朝鮮」の語が使われているが、ここでは「韓国」の語を用いた。
また、原文は旧仮名遣いだが、引用文は現代仮名遣いに変更した。



中島 敦(1909~42)

小説家。父親の仕事の都合で、韓国や満州(中国)で暮らした経験をもつ。韓国で過ごしたのは1920~26年。中国の古典に題材を得た作品が有名。なかでも、人間が虎に変身してしまう「山月記」という小説が日本ではよく知られている。韓国に関連した作品としては、ほかに「巡査の居る風景」などがある。

大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늦게나마 온 몸 가득 기쁨을 느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려는 순간, 그는 막 도착한 기차를 타기 위하여 달려가 시야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이상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이 조대환의 대사에 대하여 그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 조대환은 감정으로서의 기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그것은 외국어를 쓰는 경우의 이야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모국어로 뭔가를 기억할 때, 일일이 감정을 담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어가 한국인에게 있어서 「국어」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을 고쳐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조대환은 일본식민지주의에 항거하여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어는 국어가 아닌 외국어다”라고 조용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초두의 의문의 대사를 해석해 보면, 약자로서 일본어의 강제를 한탄하는 것같이 보이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강자로서 일본어의 사용을 거절하는 자세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조대환의 일본어에 대한 태도는 강한지 약한지의 가치기준을 의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태도를 감지하게 한다. 그러나 그런 난제와 씨름하려고 하는 것은 조대환 한 사람뿐이다. 「나」는 양심적이지만 시종 방관자처럼 보인다. 이것이 두 사람의 우정이 엇갈리는 원인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가치기준의 창출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세계는 변함없이 강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만약 조대환과 「내」가 (한국인과 일본인이) 그 문제를 공유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간다면, 설령 바로 답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신 시대를 개척하는 강인한 우정이 싹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70년 전의 「虎狩」를 리메이크한 소설을 지금 누군가가 쓴다면 어떤 결말이 될까? 이번에는 말로 어깨를 두드리려고 내밀었던 손이 꼭 상대에게 닿았으면 한다. 【カチ】

日本人の 韓国人の

特集 座談会 「特派員の目から見た日本と韓国」



おかげさまで『カチの声』も第10号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こで今号の「日本人の目」「韓国人の目」コーナーは、それを記念して日韓両方の現場経験をお持ちの新聞記者お二人の対談をお届けします。



堀山明子

1991年毎日新聞入社。静岡支局、外信部、政治部などを経て、2004年からソウル特派員。1989年に梨花女子大学に留学した経験を生かし、活躍中。



黄性淇

ソウル新聞社社会部長。社会部、政治部を経て、2度にわたり(1998~1999年、2001~2004年)、特派員として東京に駐在する。2004年より現職。

取材制限 被害者の人権&病院にカメラ

カチ： 日本では、取材に関しての制限が厳しい、という話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実際にそうなのでしょうか？

堀山： はい、とくに被害者の人権を守る、という点で、日本はとても厳しいと思います。たとえば、新幹線が何時間遅れたとかいう小さなトラブルでも、日本ではすぐニュースになりますが、そのようなときに昔だったら乗客の顔を映していましたが、今は映せません。「加害側じゃないんだから映してもいい」というのは昔の考えで、今はケガ人でも名前を出さないことも多いし、映す場合も人が特定できないようにとか、そういう配慮がなされています。

黄： 私が日本にいたときに韓国と日本とで対照的だと思ったのは、事故のときの報道の仕方でした。韓国で事故があったときに、病院の集中治療室にカメラマンが入ってインタビューをするとか、そういうところを日本のテレビが放映していて…。韓国ではしょっちゅうあ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

堀山： 苦しんでいるその人に…

黄： 2003年のテグでの地下鉄事故のときも、そうでしたね。

堀山： ええ。あのときも運転士の方が入院中だったんですが、取調べを受けている最中にカメラを回して記者が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る、という…これ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す。

黄： 私の知り合いの日本人記者もその取材に行きましたが、「いやー、韓国はすごいですね。現場に何の制限もなしで行けるし、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取材の仕方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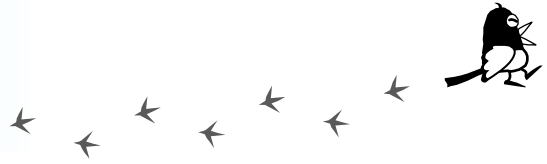
取材される側の意識の差

堀山： 韓国と日本の差、という点では、取材する側だけではなく、取材される側も、ずいぶん違うと思います。コメントを取る、ということ言えば、日本人記者が韓国人に取材するのは楽だと思います。1つ聞けば、10ぐらいは答えてくれるので。また、韓国人は自分の意見をしっかり持っていて、メディアに対して、取材を受けることに物怖じしないというか、萎縮しないので、取材しやすいです。

黄： 今の堀山さんの意見には、私も同感です。逆の立場だと、とても大変です。日本では、事件で悲しんでいるときには、なかなかコメントしてくれないし、また、メディアにコメントする人が片寄っていることが多いです。ほんとうに、日本でコメントをとるのは大変でした。また、事件や事故の場合だけでなく、普通の取材でもいろいろな手続きがありますね。企画書を出してOKをもらって、それから取材に行って、コメントを取る。もちろん、電話でも簡単な取材ができる場合もありますが、非常にめずらしいケースでしょうね。

取材の仕方

堀山： 取材の仕方と言えば、日本だと現場に必ず行くのが基本です。どんなに小さな事件でも、人が死んでいけば必ず行きます。日本の場合、とくに新聞だと、地方支局が47都道府県必ずありますから、ケガ人だけでもできるだけ必ず行きます。写真を撮ったり人の目撃証言を集めたりするのが記者の基本です。入社して5年間地方勤務をするというのも、そういう事件取材、現場を見ることが記者の基本だからです。電話取材もしますが、日



本では、一度会ったことのある人でない限り、ほとんど無理ですね。仮にうまくいっても、きちっとした意見が聞ける可能性は低いです。

カチ： 日本では、まず会わなくては取材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堀山： ええ。でも韓国では、知らない政治家や学者でも電話で答えてくれます。これには外国人だという点もあると思います。日本人の記者が一生懸命韓国語で聞くと、非常に親切にわかりやすく答えてくれ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サービス精神と言うか、思いやりがあると言うか。

黄： 政治家や有名な学者でも、携帯の番号を知るのが簡単ですすね。

堀山： いきなり面識がないのに電話をしても答えてくれるのは、日本人だから特別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韓国人記者がそういう取材をしているというベースがあるからなんです。最初は、会ったことのない人にいきなり携帯というのは失礼だと思って、遠慮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アポイントをとって何かをしようとするのが嫌がられることが多いです。「今、この電話で話してよ。コメント言うから」という感じで、その場で答えてくれますので。

黄： 私は特集の取材で今月日本に取材に行くことになっていて、知り合いの記者から取材できそうな人を何人か紹介してもらったんですが…。自宅の電話番号と携帯番号、両方教えてもらいましたが、やはりまずは自宅にかけよう、釘をさされました。日本では携帯番号を知っていても、OKをもらわないと取材できないんですね。だれかの紹介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が電話してもいい、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

堀山： 自分が取材される側である場合を考えてみても、そうですね。日本にいた頃は、知らない人から電話がかかってくると、「この番号をどうやって知ったんですか？」って、すぐ聞いていましたから。韓国に来て、今はもう、まったく気にしなくなりました。また、事務所の電話番号がわかっている場合でも、「直接携帯で話したほうが早い」ということもあるようです。携帯をホットラインで使うという前提、コンセンサスがあると言うか。

黄： 日本では「夜討ち朝駆け」（警察や国会議員の家の前で担当記者が本人に話を聞くスタイル）の慣習が残っていますよね。韓国も、以前はこのやり方でやっていたのですが、今は、ほとんどなくなりました。携帯が普及したからです。携帯がなかったときは、朝、政治家の家まで行って話を聞いて、また夜に行って話を聞く、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が、今はその必要が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たとえば、私が取材現場の記者だとして、ある議員に取材をする必要が生じたとき、あらかじめ知っていた携帯番号に電話をしたら、それを基に記事を書いて終わり、ということです。国会議員の場合、私用の携帯のほかに、マスコミ用というか、公の携帯をもう一つ持っていますから。韓国では、携帯の普及によって、取材の仕方が変わってきました。

堀山： 変わり始めたのはいつごろですか？

黄： 携帯が本格的に普及したのは90年代末。そのころですね。

堀山： 携帯の普及率で言えば、たぶん韓国のほうが高いと思います。ただ、実際、働いている人達の層で言うと、韓国も日本も普及率は同じぐらい、全員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でも、韓国は技術が進歩すると使い方が変わりますが、日本のほうが「変わること」に対して保守的なのでしょうか。私はソウルに来る前は政治部の記者だったのですが、さっきお話の出た「夜討ち朝駆け」は今でも続いています。もちろん担当記者であれば、自分の担当の政治家の携帯を知っていますし、急いでいるときは携帯に電話するのですが、むやみに電話を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本当に情報をとる、という点からすれば、無駄なことが多いですね

どこまで書くか、というジレンマ

カチ： 日本と韓国の取材の仕方に関して、いくつかの視点でお話をいただきましたが、特派員をされていて、その他に戸惑うことなど、おありですか。

堀山： 今までお話してきたように、韓国では何でも取材できるし、話を聞くのも簡単です。ここで私が悩むのは、「何をどこまで書くのか」とい

う点です。日本のメディアである毎日新聞の基準というか、そこで働く記者の私が「何をどこまで書くのか」を考える、ということです。韓国の基準ではどこまでもOKになるので、「それでいいのか」といつも考えなくてはならない。たとえば、さきほどの電話取材に関しても、携帯ですぐにコメントはとれるけれども、「10話したことをすべて載せず、そのうち2つか3つだけを載せ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日本ではあとでトラブルになります。つまり、記事にする場合は「このコメントのこの部分をこういうふうに書きます」という手続き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もちろん事故現場で取った被害者の話などは相手に確認できませんが、たとえば「被害の状況などで相手に不利になるような話は書かない」など、いろいろ自分で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感じですね。こういう作業は韓国でも必要だと思って、できるだけそう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カチ： なるほど。いろいろなご苦労がおりなのですね。

確認作業と取材される側の意識

カチ： 取材の仕方には、いろいろ違いがあるようですが、その違いはどこから生じているものだとお考えですか？

黄： 国民性もあると思いますが、記者としての倫理の問題もあると思います。今、堀山さんがお話しされたのも、正しいやり方だと思います。きちんと確認をとって。たとえば、学者が言ったことを記事にする場合に、ゲラをその学者に送って、見てもらってOKをもらうとか、そういう手続きは、韓国にはあまりないですね。私は日本の「確認また確認」という姿勢は学ぶ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これから、そういう取材の仕方が、韓国でも根付いてくればいいと。

堀山： 日本のほうが確認をよくするという点に関連しますが、取材される側の緊張感というか、

そういった心構えが、日本では韓国ほどないと思います。韓国のように携帯で聞いた話がパッと記事に出るような環境では、政治家はそれを前提に、いかにも自由に気楽に話しているように演出していながらも、かなり自分で考えながら話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ざるを得ないです。つまりそのまま書けばそのままきれいに字になるように、きちっと整理されてお話になります。取材される側の緊張感、出してくるメッセージの完成度は、韓国のほう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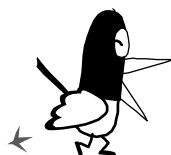
新聞記事からわかること

黄： 今おっしゃったことは、新聞を見るとよくわか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たとえば日本の政治記事はすごく難しく、それを見ても、フリーティングがなければいったい何が起きているのか全然わからない。韓国の新聞の政治記事は記事を見れば「何が起きているのか」大体わかる。その差が、おっしゃったことと関連し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堀山： 専門的な話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が、政治部記者の仕事について少しお話しします。政治記者の役割には、事実関係を書くこと以外に、「政治家が言ったメッセージを解釈してあげること」というのも含まれます。たとえば、政治家は言いたいことがあるけれども、それは立场上言えない、というような場合。担当記者は、その政治家の気持ちをわかっているのだから、引用記事とともに「でもこの真意は、こういうことを目指しているのだ」と書く。政治関連の記事で、「こんな曖昧な発言から、どうして記者がここまで判断するのか。その理由は？」というような記事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れは記者が、言わば政治家の気持ちを代弁しているようなもので、普通の人が見てもわからないことが多いです。政治家が言えないけれど、それに近いことを丸くして言ったもの。それを引用しながら記者が分析、解釈して「こういう流れだ」と書く。これは取材対象との信頼関係があってできることですが。

新聞記者の数

黄： 今おっしゃった取材方法が可能なのは、



新聞記者の数によるところもあります。韓国の新聞政治部は20人前後、その20人がいろんな分野をカバーしています。たとえば与党担当が3~5人ぐらいですべてカバーをしているから、余裕がありません。分析をして考える余裕もありません。いっぽう日本の場合は、政治部に100人以上の記者がいる場合が多いですから、いろいろなところから取材してきたものをまとめる。要するに5倍以上の数の差がある、こういう環境の違いですね。「夜討ち朝駆け」も、人がいるから可能なことなんです。

堀山： ▶ 日本は担当が細分化されていて、自分の担当でない場合は動か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せんね。

黄： ▶ ある日本の新聞の編集局長が言っていました、政治部には人がたくさんいて、記者同士の情報交換が難しいそうです。人が少ないほうが、情報交換が円滑にできる、ということなのかもしれませんね。

現場取材の大切さ

カチ： ▶ 海外で仕事をされる場合、どんな事件や事故を取材するのか、どんな記事を書けるのか、というのは全面的に特派員の方に任されるのですか？

堀山： ▶ ええ、そうです。ちょっと話が飛びますが、特派員をやっていると、なかなか現場取材に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も、現場取材をすることによって、事実も見え方も変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す。たとえば、今回の日韓の文化交流が中断したという取材をしているときに、反省したことがあります。ある時期、表にするぐらい、中断のニュースがたくさん出てきた時期がありました。これは事実であるし、読者に考えてもらう機会にもなるのだから、と、関連するニュースをまとめようとしていたのですが…。そうすると、引用したニュースがまたニュースになって、それがまた引用されて…というふう、「こんなに悪化している」という印象を与えていた気がしてきました。そしてそれは、日韓関係をよくする方向に役立っ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でも、その後、このニュースに関連した現場取材

に行ったとき、目から鱗が落ちるような経験をしました。中断、中断と騒がれていたけれども、実際現場に行ってみると、「この中断は本当の意味の中断じゃなくていつでも再開したい」という意見が出る。また、中断されず予定通りに行なわれたイベント会場で、「警察から『大丈夫ですか?』と念を押されて不安になった」とか、「反対の声もあったけれど韓国側の主催者が周りを説得して実現した」とか、そういう声が聞こえてくる。普通、ニュースというのは予定外のことがニュースであって、予定通りに行なわれたことはニュースにならないんですけど、このように、現場取材をすることで事実も見え方も変わってくるのです。

黄： ▶ でも、現場取材に出かける時間は、あまりないのではないですか？

堀山： ▶ ないです。ですから今回、ちょっと反省しました。

最後に

カチ： ▶ では最後に、本日の対談を終えての感想を一言ずつお願いいたします。

堀山： ▶ 対談を通じて、東京で苦勞された黄先輩には申し訳ないぐらい、ソウル特派員は恵まれた環境で仕事をしていると感じました。社内の人権マニュアルの違いも指摘しましたが、基本的には日本より韓国のほうが人間関係が密接だから取材しやすいのだと思います。一方、それは、取材する側の人間味も問われてくるので、私自身が前向きな姿勢で韓国社会に関心を持つことが大切です。ソウル滞在中は、できるだけ多くの人と対話できるよう心がけたいと思います。

黄： ▶ 私は4年間特派員として生活をしていましたが、そのときの一番大きな収穫は、日本の独特の取材環境の中でいろいろな人と出逢えたことです。国によって文化や環境は違いますが、人間社会で活動し、取材をしていく上で一番大切なことは、やはり多くの人々との出逢いでしょうね。堀山さんのソウル特派員としての残りの期間、どうぞ充実した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

カチ： ▶ 本日は、貴重なお話を聞かせ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日本語 **上達** のために (8)

ことわざの略語



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ーを略したパソコン、テレビジョンからできたテレビ、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がコンビニなど、日本語に略語が多いことは有名です。最近では、マック(マクドナルド)やスタバ(スターバックス)など店の名前や、キムタク(木村拓也)、ブラピ(ブラッド・ピット)など人名まで、**語呂**が合えばなんでも言いやすいように略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本当の言葉を知っていても、略語を知らないと会話についていけないこともあるため、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人にとっては、意外な落とし穴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ところで、昔からある **ことわざ** も、省略された形で現代の若者の会話に顔を出しているのをご存知ですか。

たとえば、下の会話はどんな意味だと思いますか？

A : 私、バレンタインにチョコとマフラーを彼にあげたの。そうしたら、ホワイトデーにグッチの財布もらっちゃった！

B : うわあ、それって、**海老鯛**じゃん。

「海老鯛」とは、「海老で鯛を釣る」という **ことわざ** からできた略語です。「小さな海老で大きな鯛を釣るように、少しの努力や負担で多くの収穫を得ること」「ほんの少しの贈り物で、たくさんのお返しをもらうこと」を言います。ほんの気持ちでプレゼントした物が何倍にもなって返ってきたら、うれしいですね。もっとも、最初から鯛を釣ろうとして海老を差し出しても、期待した物が返ってくるとは限りません。

では次の例を見てみましょう。学生と教師の会話です。

学生 : 先生、先週の試験の点数、ちょっと納得がいかないのですが…。もう一度確認し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教師 : そうですか。じゃあ、見てみましょう。
あれ？ これも間違えていますね。おや？ これも。

どうやら私の採点が甘かったようですね。

学生 : (しまった！ **藪蛇**だった！)

「藪蛇」は、「藪をつついて蛇を出す」を略した言葉で、藪をつつくと蛇が驚いて出てくることから、「余計なことをして、かえってひどい目にあう」ことを意味します。上の会話では、学生がもっといい点を取ろうとして主張した結果、間違いが見つかり、逆に点数が下がってしまいました。

みなさんも、言わなくてもいいことを言って怒られたり、悪気のない一言で関係が悪くなってしまったり、

「藪蛇だった」と思うような経験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友達同士の会話では、次のようなものもあります。

A : 私、来週ハワイに行くことになったの！

B : ええ？ いいなあ。でも突然だね。

A : うん、うちの母が懸賞に応募して、ハワイ旅行が当たったの！ それで、一緒に行こうって。

B : ふうん、**たなぼた**だね。うらやましい。

これは「棚から牡丹餅」という **ことわざ** の省略形で、棚から突然おいしい牡丹餅が落ちてくるように、「何もしないのに、思いがけない幸運、好機に恵まれること」です。このようないいこと尽くめの話は「おいしい話」「うまい話」とも表現されます。

ちょっと長い **ことわざ** も、このように短く略した形で若者に親しまれています。みなさんが日本語で話す時にも、取り入れ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え？ ただでさえ難しい **ことわざ**、日本人と同じように使うことはできない？ いえいえ、上手に使いなくても大丈夫。**駄目もと**※だと思って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ことわざ** を効果的に使って、会話を洗練させましょ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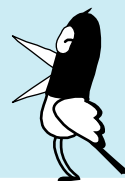
※「駄目でもともと」という表現の省略形。成功する見込みは薄いですが、とりあえずやってみること

(漢陽女子大学 日語通訳科 専任講師 岩井朝乃)

参照 : 『まんがことわざなんでも辞典』金の星社
ことわざわーど <http://www.kotowaza-world.com>



このコーナーでは、読者のみなさんの声を紹介いたします。
ご意見、ご感想など、お寄せください。



読者の広場

「日本語上達のために」のコーナーは私のように韓国語を学習している日本人にも大変ためになります。「八方美人」のように解釈が異なる言葉は、語学が上達し始めた頃にぶつかる壁の一つです。失敗した後に誤解だとわかると安堵しますが、なるべくなら前もって学習しておき、少しでも失敗を減らしたいものです。(ソウル在住 女性)

간단한 듯 끝이 없는 게 일본어 습득이며, 익숙한 듯 문득 새삼스러운 것이 일본인과의 교제이지 싶다는 생각을 하던 요즘, 「韓国人の目一遠まわしな日本、ストレートな韓国」 코너를 읽고 무척이나 공감을 하였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자기주장'에 관한 표현의 차이, '젓가락, 한자, 유교' 라는 같은 문화권 아래서 생기는 선입관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역시 이것은 글쓴 분의 말씀대로 쌍방간의 '속마음, 본심'의 토로만이 진정되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든 문화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다짐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日本語学習歴16年の会社員)



編集部より

- ◇ 「韓国では携帯電話での取材もOK」というお話を、特派員のお二人からうかがいました。これからは、会ったことがない人にも気後れすることなく電話がかけられそうです。(あ)
- ◇ 빠격거리던 [한일우정의 해] 행사가 이제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역풍이 아니길 빌며, 이 번호의 [한일우정의 해] 관련 지면과 『카치의声』 제10호 기념 좌담회에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봅니다.(J)

日本語講座からのお知ら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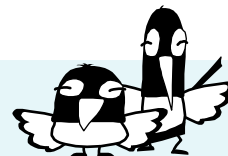
6月3日、2005年度前期日本語講座の卒業・修了式が執り行われました。今回コースを修了された方は134名、その中で卒業された方(4コース修了)は23名でした。センターで身につけられた力を生かし、それぞれの分野でご活躍ください。

『チーム・ティーチング授業事例集』のホームページがオープン!

当センター日本語ネイティブ教師が韓国人日本語教師と共に行ったチーム・ティーチング授業(2002~2004年に韓国内の高校で実施)の事例集がアップされました。高校の先生方だけでなく、中学校の先生方にもご活用いただけます。ぜひアクセスしてみてください。

<http://tt.jpf.or.kr/>

読者プレゼント



今号より、「読者の広場」にご意見・ご感想をお寄せいただいた方の中から抽選で2名様に、「翻訳を語る」コーナーで紹介した翻訳本(1冊)をプレゼントいたします。今回の締め切りは8月31日です。

送り先は gomado@jpf.or.kr まで